

농림축산식품부

작년 한 해,  
농축산물 신유통경로를 통해  
가구당 평균 33,811원 절감 효과

농산물 신유통경로는 농업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를 통해 생산물을 판매하는 대신 로컬푸드 직매장 등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유통경로를 활용하는 농업인들은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 결정방법에 만족\*하고 있다. 이들 농업인들은 소비자의 반응에 민감하고 능동적이다.

\*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 만족도 및 생산자 기대효과 조사분석 연구」(‘14.12)

농산물 신유통경로는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패기로 뭉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창업의 장\*이다. ‘14년 직거래 컨테스트 ‘우수사업모델’에서 수상한 ‘프레시멘토’와 ‘샷갓유통’ 모두 2~30대의 청년이 창업한 업체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온라인을 기반으로 ‘회원제’와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다.

\* 직거래는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패기로 뭉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구조...(대통령말씀, ‘14.7.11)

그렇다면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통해 농산물을 사는 대신 로컬푸드 직매장 등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용하여 얻는 이득은 어느 정도일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14년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를 활용하여 절감된 가구당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약 33,811원으로 추정된

다고 밝혔다. 이는 농축산물 ‘신유통경로’를 통해 절감한 유통비용 6,240.7억 원을 ‘14년 가구수 1,846만호\*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다.

\* ‘14년 가구의 연령/가구원수별 추계가구수(통계청) : 18,457,628호

농축산물 ‘신유통경로’란 도매시장 등의 관행유통경로가 아닌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직거래장터, 사이버 쇼핑 등의 대안유통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농식품부는 ‘신유통경로’를 통해 최대 20%까지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유통경로’ 중 소비자와 직접 직거래 등으로 판매된 실적은 ‘13년 1조 6,362억 원에서 ‘14년 1조 8,192억 원으로 11.2% 증가하였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13년 거래액 694억 원에서 ‘14년 1,704억 원으로 145% 이상 증가하였으며, 직매장 개소수 역시 ‘12년 3개소, ‘13년 32개소에서 ‘14년 71개소로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꾸러미와 직거래장터 또한 ‘13년 대비 ‘14년 매출 실적이 각각 65.3%, 15.6% 증가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꾸러미,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시장의 확대를 위해 「‘14년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직거래 사업자를 지원하였으며, 직거래 컨테스트,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우수한 직거래 모델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추진하였다.

‘신유통경로’ 중 기업간거래(B2B) 거래액은 ‘13년 3조 4,428억 원에서 ‘14년 4조 5,533억 원으로 24.4% 증가하였다. 특히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B2B 거래액이 ‘13년 1조 2,347억 원에서 ‘14년 1조 7,151억 원\*으로 약 38.9% 증가하였다.

\* aT 사이버거래소 '14년 전체 거래액(2조 2,131억원) 중 수산 및 가공을 제외한 B2B 거래액 합계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B2B 거래 모델을 개발, '14년 9월에는 산지-소상인(외식소매유통)간 직거래시스템인 포스몰(POS-Mall)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포스몰 참여자는 공급자 172개소, 구매자 1,083개소로 '15년 1월까지 누적 거래액은 1,948백만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직거래 등 새로운 대안 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15년도에도 '신유통경로'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 및 생산자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한 직거래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 내실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금년에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지원과 컨설팅 등 교육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5개소에 대해 직매장 설립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지원하고(보조 30%, 3억원 한도), 조직화 교육비(보조 100%, 20백만원) 및 홍보비(보조 100%, 6백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기존사업자에 대해서 최대 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컨설팅을 시범실시(보조 70%, 개소당 30백만원)하고, 30개소 대상으로 농업인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여(보조 100%, 10백만원) 직매장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식 직거래장터' 개설을 위한 차량구입 및 내부 판매시설 구입 지원(보조 80%, 1억원 한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직거래장터의 유형별 지원을 추진한다.

직거래장터는 관광지형/품목특화형(주산지형)/상생형 3가지로 나누어 각 5개소씩 총 15개소에 장터장비비용 및 홍보비를 지원(보조 80%, 60백만원 내외)할 예정이며, 기타 일반형 장터 10개소 내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 관광지형 : 공원, 휴게소, 명소 등 관광지 연계 직거래장터
- \*\* 품목특화형(주산지) : 품목별 유명 주산지의 품목 위주의 직거래장터
- \*\*\* 상생형 : 전통시장, 특산물 시장, 공공기관·기업 협력형 직거래장터

이와 함께, 우수 직거래사업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의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 6월 중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여 로컬푸드 상품을 전국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포스몰(POS-Mall)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의 통합 마케팅 조직 및 산지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입점업체 성공사례 발굴을 통한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 농식품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유통경로인 '신유통경로'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신유통경로'를 통한 유통비용절감액 '15년 목표 : 7,318억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의유전자원 확보, 자원 부국으로의 도약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 2008년 3월에 설립된 한국수의유전자은행에서는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돼지열병바이러스, 돼지 유행성설사병바이러스, 브루셀라 및 세포주 등 총 5,677주를 수집하였고, 지난 5년간 920주의 수의유전자원을 대학, 연구소, 산업체 및 정부산하기관 등에 분양하였다고 밝혔다. 분양된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논문 10건, 특허 1건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외 가축 유래 병원성 미생물(바이러스, 세균 등)인 수의유전자원을 확보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보존관리를 수행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수의유전자원의 분양을 목적으로 한국수의유전자은행(Korea Veterinary for Culture Collection: KVCC)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09년 11월 세계균주보존연맹(World Federation for Culture Collection) 가입

국제적으로 각 나라마다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보유국은 자국유래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의 확보 및 이를 이용한 국부창출을 위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 :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약칭이며 2014년 10월 발효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의유전자원의 분양요구가 있는 단체에 지속적인 분양을 통하여 수의학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나고야의정서 협약에 대비하여 소중한 수의유전자원을 수집·등록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의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분양을 수행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설 대비 식육 가공·포장처리업체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과 합동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8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15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속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업체의 유통기한 위·변조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육가공업체(8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42개소), 축산물판매업체(14개소)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및 원산지 위·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

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1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3개소)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4개소)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2개소) ▲보존기준 위반(1개소)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4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원료육(쇠고기)으로 포장육 제품(우다짐육)을 생산할 경우 원료육의 유통기한 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부산시 OO군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원료육의 유통기한 보다 20일 연장(2015.12.16→2016.1.5) 표시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62kg 압류)
  -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지만 경기도 OO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2014년 11월 10일까지)이 경과된(74일 경과) ‘냉동쇠고기(포장육)’제품 약 57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약 57kg 압류)
  - 부산시 OO구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보관방법이 -18℃이하 냉동보관인 포장육 제품(우뿔살)을 냉장상태(-2℃)로 보관하다 적발
  - 서울시 OO구 소재 식육가공업체는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기구류(성형틀)를 세척 및 소독을 하지 않고 기름때가 묻어있는 상태로 작업장 바닥(배수로 주위)에 쌓아두고 작업에 사용하는 등 작업장의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
- 이러한 위반업체 중 유통기한 연장표시 및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

발된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촌진흥청

#### 친환경 가축 생산 기술 개발·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동물복지형 축사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복합을 통해 친환경 축산의 기틀을 다진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12년부터 돼지와 닭, 한우, 육우, 젖소의 동물복지 축산농장1) 인증기준안을 마련해왔다. 올해 11월까지는 마련할 우리의 인증기준안에는 적정 사육 밀도 유지와 사육 환경 관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동물복지에 대한 농가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축종별로 축산농장 인증 기준 해설서와 교육 동영상 등을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다.

ICT 융합·복합을 통해 축사 시설의 본보기를 만드는 데도 박차를 가한다. 가축의 행동이나 발성 같은 생체 정보는 가축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데 유용하다. 이 정보를 분석해 자료화하고, 가축 관리나 환경 관리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 찾을 방침이다. ICT를 활용, 축사 내부 환경을 관찰하고 축사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사육 여건에 알맞은 동물복지형 시설을 현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가축 관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축사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열환경(온도·습도) 측정 장치를 이용해 적절한 축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젖을 떼 새끼 돼지의 육성율(2)을 개선하기 위한 환기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젖을 먹이는 어미돼지를 위해 자동먹이통(급이기)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 이 시기의 어미에게는 이 장치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이를 자동으로 공급해 사료 섭취를 늘려 준다. 먹은 양이 기록돼 관리자가 영양 상태도 가늠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최근 동물복지와 ICT 융합·복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의 축산에서도 필수로 고려해야만 하는 항목이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친환경 축산은 축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1) 농림축산식품부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

2) 낳은 새끼를 길러 낸 비율

## 농촌진흥청

유·육가공기술로  
축산업의 6차산업시대 활짝!  
현장 밀착 기술지원과  
특화된 기술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축산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특화된 기술 보급으로 현장 밀착지원에 나선다. 우유와 돼지고기를 자연치즈, 발효 육제품으로 만들면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규모 가공업체와 차별화된 유·육제품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낙농가와 영농법인에 보급해 왔다.

### 〈 우수 적용 사례 〉

- ▣ 전북 남원 솔마당 : 버크셔종 흑돼지 뒷다리로 지리산 생햄제조 판매

  - 농촌진흥청개발 발효생햄 제조법과 지역 생산 버크셔 고기를 접목 상품화
  - 부가가치 10배 이상 향상 : 흑돼지 뒷다리 5만원 → '지리산 생햄' 50만원
- ▣ 전남 영광 유레카목장 : 체험목장 및 유제품 제조판매

  - 낙농체험목장 및 자체생산 발효유 및 치즈 인터넷 판매: 1억5,000만원(2014)
- ▣ 경기 용인 농도원 목장 : 낙농체험목장 운영

  - 낙농체험목장 운영 및 발효유 생산 판매
  - 연간 판매소득: 체험객 3만명, 체험소득 6억3,000만원(2014)

올해는 그동안 기술을 보급한 농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새롭게 기술을 요청하는 지역에도 맞춤형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낙농 체험장과 낙농가에서 제조한 유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체험, 유제품제조)의 정보를 모아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식육가공제품의 소비창출을 통해 부위별 소비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육제품 및 양념육 등 110종의 제조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였다. 올해는 가열육제품 50종, 비가열 육제품 40종, 발효육제품 10종 등 총 100종을 추가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산 축산식품의 소비를 늘리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 육제품인 소시지의 고급화를 위해 원료육 종류와 함량, 대두단백, 전분 등 각각의 성분과 양을 분석해 품질기준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축산식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해물질 진단과 제어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축산물이용과장은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보급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축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수출애로 상담사례집  
『농식품수출의 노릇돌이 되어』  
발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aT농식품수출애로 상담실의 수출애로 상담 사례를 모은 『농식품수출의 노릇돌이 되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노릇돌 :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에 발돋움하기 위하여 대문 앞에 놓은 큰 돌)

aT 농식품수출애로상담 사례집은 해외 수출과정에서 있어 통관, 검역 등의 규제와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 상담 등 전문상담사의 수출애로 상담사례와 해외시장맞춤조사 사례, 맞춤형바이어알선보고서 사례 등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사례집은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유럽시장에 인·홍삼 완제품을 수출한 D사 사례, 신생기업으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게 된 A사 사례 등 수출애로상담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1부에 담겨져 있다. 2부에는 일본의 버섯 시장, 인도의 주류시장, 중국의 스낵 및 시리얼류 시장, 브라질의 음료시장 등 세분화된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사례가 수록됐다. 3부에는 각 농식품에 맞는 맞춤형바이어를 찾아주는 맞춤형바이어알선보고서 지원사업 사례가 수록됐다.

aT농식품수출애로상담실의 문을 두드린 한 농식품기업은 ‘이런 맞춤정보 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입을 모았다. 수출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조차 갖추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통관절차에서부터 무역 실무까지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중소 농식품기업의 든든한 노릇돌이 되고 있다.

aT농식품수출애로 상담실은 “이번 수출애로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고민

해결 사례는 물론 해외시장맞춤조사, 맞춤형바이어  
 알선보고서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더 많은 농  
 식품기업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수출지원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aT농식품수출애로상담사례집『농식  
 품수출의 노릇돌이 되어』는 e-book형태(pdf 파  
 일)로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 홈페이지(www.  
 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협중앙회

### 설명절 앞두고 구제역 및 AI 확산방지 조직역량 총력집중

농협은 방역당국 및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설 연  
 휴 기간인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귀성 및 귀경  
 객을 대상으로 구제역 및 AI 확산방지를 위한 국  
 민 행동요령과 축산물 안전성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역,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  
 등 주요 역사 및 버스터미널, 공·항만 등 17곳에

서 펼쳐졌다. 행동요령에는 ▲축산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자제 ▲방역 초소 통과 시 차량소독  
 철저 ▲축산물 소비 안전성 등이 설명되어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기수 농협 축  
 산경제대표이사는 2월 18일 오전 10시 대전역에  
 서 주요 축산관련단체장들과 함께 대국민 구제  
 역·AI확산방지 및 축산물 안전성 홍보 캠페인  
 을 전개하면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  
 와 구운 계란을 나눠주었다.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구제역 및 AI  
 조기 종식을 위하여 불편하더라도 통제초소나  
 방역지역 통과 시 차량 또는 대인소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가능하면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구제역 및 AI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318개 비상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전국 450개의 농협공동방제단을 통해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 1만1천호에 대한 긴급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9개권역 비축기지를  
 통해 생석회 961톤, 소독약 45천리터를 지원하  
 는 등 구제역 및 AI 조기종식을 위하여 총력을 기  
 울이고 있다.

